

변상환 작가를 소개합니다.

글. 김인선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변상환 작가는 관람객에게 전시된 작품을 손으로 들어보라고 권하곤 하였다. 전시장 전체에는 모래사장 위로 크고 작은 초록색의 덩어리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다. 플라스틱 바가지의 손잡이 끝부분이 확대된 모양을 비롯하여 벽돌들을 엮어서 만든 한 평짜리 뗏목과 소주병이 널브러져 있거나 울퉁불퉁한 불규칙한 모양의 덩어리들-알고 보면 이들 또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이름 모를 돌과 초코볼을 묘사한 조각이다- 등이다. 이들의 재료는 플로랄폼과 방수 페인팅이며 워낙 물에 대한 흡수 혹은 방수하는 분명한 성격이 합쳐져 있는 오브제이다.

불규칙적인 모양새의 형태가 차지하는 부피나 표면을 두껍게 덮은 방수페인팅의 견고함이 주는 무게에 대한 기대감은 그것이 실제로는 가볍디가벼워서 몸의 긴장이 순간적으로 탁 풀려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작가 특유의 가벼운 농담과도 같은 느낌이면서도 상징적인 장치를 곳곳에서 찾게 되는 출발점 같은 것이었다. 재현적 조각이되 껍데기로서 읽히고, 존재하고 있으되 텍스트로 치환되기도 하는 이들은 대중적이면서 유희적이기도 하다. 전시의 제목인 <단단하고 청결한 용기> 역시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다의적 유희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전시의 제목으로서의 '용기'는 누가 보아도 courage를 떠오르게 하고 있으며 작가 역시 이를 그러한 뜻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글은 싸구려 바가지 바닥에 적힌 홍보문구이다. 그래서 원래의 문맥상 '용기'의 뜻은 bowl(그릇)이다. 초록색은? 한국의 흔하디흔한 옥상의 바닥 색이다.

변상환 작가가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보여준 개인전 <단단하고 청결한 용기>에서의 작업은 새롭게 제작한 신작이면서 동시에 그간에 진행해온 과거의 작업으로부터의 확장적 전개를 보여주는 작업이기도 하다. 초록의 덩어리는 과거의 작업, 기억, 작가의 일상적 환경 등을 환기시키는 환영의 실루엣으로서 그가 다루는 시간의 레이어들을 흥미롭게 투영하고 있었다. 변상환의 초기 작업을 보면 그가 흥미를 가졌던 지점은 지금으로부터 조금 앞선 시대의 오브제들에서 풍기는 색다른 감성에서 시작된다. 즉 버려진 예전 물건들을 수집하고 이들을 탁본으로 제작하면서 과거의 시간을 박제화 한다든지, 고무장갑, 김장배추, 간장제장 등의 말랑말랑하고 유기적인 오브제들을 시멘트로 캐스팅하여 견고한 화석으로 만들어버리는 작업을 하였다. 작품 <세박자>는 송대관의 노랫말이 전통 동양화 형식에 입혀짐으로써 그 노래의 텍스트만이 남겨지고 특유의 뽕끼 충만한 흥보다 사랑에 대한 고뇌의 글귀만이 남겨진다. 이들은 알고 보면 우리들에게 익숙하며 그리 멀지 않았던 과거에 대한 것을 환기시키고 있었으며 묘하게 지금의 감성과의 교집합을 이루면서 친근감이 살아있는 키치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곤 하였다. 이후에 그는 거리 곳곳에 의미 없이 세워져 있는 돌들을 주목하여 사진을 찍은 후 이들에게 해당 주소로 제목을 붙인 <낙산돌> 시리즈를 진행 중인데, 이 작업을 통하여 이름도 용도도 없는 돌들에게 장소성을 부여하고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다. 왜 이런 형태의 오브제가 이 작가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의 작업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그가 만들어 놓은 초록 덩어리들은 작가의 원초적인 관심으로서 환기된다. 즉 조각(sculpture)이다.

변상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마련된 PT&Critic에서의 토의 중 스스로 동시대적 콘텐츠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형식적 완성도나 시각적 감흥을 끌어낼 수 있는 조형 요소에 전착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를 조각이라는 테두리로 끌고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본 행사에서 패널로 참여한 권오상 작가가 발언하였듯 돌이라는 소재가 손색없는

추상 조각으로서 그 형식적 요소와 감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변상환 작가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 짐작되기 때문이다. 길가에 방치되어 있던 돌덩이를 색다른 모습으로 감상할 수 있는 감각은 조각이라는 전통적 장르로의 회귀적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바닥의 모래밭이 이를 하나의 설치 작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초록 덩어리들은 하나하나 모델을 두고 있고 이를 확대하거나 원본 크기로 재현한 것이다. 그것이 초록색 스킨을 덧입혀진 채로 그 가벼운 무게의 낯선 체험이 추상 덩어리로서의 확신을 주는 것은 이 재현의 덩어리들 자체가 돌의 무한한 조형 요소를 바라보게 만드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동시대적 감각, 작가를 둘러싼 도시의 풍경과 자신의 일상 등과 함께 이 전시에서 드러나는 초록 실루엣의 풍경에서 조각이라는 전통적 맥락으로부터 비껴나가고자 하는 태도이자 동시에 조각의 근본적인 출발점을 환기시키는 단서를 찾을 수 있었기를 바란다.